

복현1동  
사람들의 소중한 소식함

# 들샘 소식지

## 마을신문 창간을 기념하며

마을대학 견학 후기  
도시재생 사례지 소개  
우리동네 맛집소개



그림 최유정

이름이 왜  
'들샘' 소식지 인가요?

들샘은 아주 예전부터 복현에 있었던 샘입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올랐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물을 마셨고, 땅이 메마르는 가뭄이 와도 들샘에서는 물이 솟아나와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하는 걱정을 한시름은 덜어 주었습니다.

들샘 소식지는 옛 복현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미소를 가져다준 들샘처럼 복현에 꼭 필요하고 따뜻한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샘 소식지가 복현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복현1동 주민협의회 마을기자단

발행인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9길 13 2층

전 화 053-939-3550

디자인 디자인농익다

# 마을신문 창간을 기념하며

2020년 6월, 북현1동 사람들의 소중한 소식들을 담아내고 더욱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자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 모인 기자단은 직접 마을신문의 이름을 '들샘 소식지'로 정하고 창간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들샘소식지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던 이웃의 소식, 주민이 꿈꾸는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담아 공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떨어진 북현1동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두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북현1동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

안녕하십니까? 북현1동 마을 신문 『들샘소식지』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북현1동 마을기자단이 발족하여 벌써 소식지 창간호가 나온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북현1동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여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소식을 주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주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북현1동 마을기자단이 출범하였으며, 들샘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들샘소식지의 '들샘'은 예전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북현동의 한 가운데 있던 샘을 말합니다. 고단한 농사 활동 중에 들샘의 물을 퍼내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민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샘터 같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북현동의 소중한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변화할 북현1동에 대해 기록하는 '기록가' 역할도 할 것입니다.

들샘소식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분들이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북현동의 소중한 소식을 모으는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준수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북현1동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현1동 동장 차현철입니다.

'들샘소식지' 창간호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들샘소식지' 탄생이 있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협의회 강순덕 대표님과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은운 센터장님을 비롯한 마을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1월에 개소한 이래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들샘소식지' 발간은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들샘소식지'가 지역의 다양한 마을 소식을 공유하고, 유익한 정보까지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겨운 사랑방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소통에 앞장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북현1동 동장 차현철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운

북현1동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기자단을 발족한지 두 달여 만에 주민들이 마을현장 곳곳을 취재하고 직접 기사를 쓰고 '들샘소식지'를 탄생시켰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마을기자단 워크숍에 참여하여 열정과 정성을 담아 주신 마을기자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점시설을 짓고 위험한 길을 단장하고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고 이웃 관계를 회복하여 사회적 재생을 이루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기자단의 취재활동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이어나고 공동체의 관계망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샘소식지'가 북현1동 주민들의 소중한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소식통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현1동 주민이 만드는 마을 신문, <들샘 소식지> 시작!!

심재신 기자

2020년 6월 4일 수요일,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북현 마을기자단 워크숍>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북현1동 주민협의체 임원 및 주민, 도시재생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마을기자단은 8주 간의 워크숍을 통해 북현1동 마을소식지를 기획 및 창간하게 되었다. 첫 수업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자단의 구성원 중에서 편집방향을 정하고, 기획과정을 조율할 편집위원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현1동 소식지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공유할 영상보도국장을 선출하였다. 편집위원장은 주민협의체 하경진 총무가 선출되었고, 영상 보도국장에는 김태호 주민이 선출되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북현1동 소식지 이름을 공모받았고, 투표를 통해 <들샘 소식지>로 결정하였다. 여덟번의 워크숍과 추가로 더해진 편집기획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들샘 소식지 창간호를 시작으로 북현1동의 도시재생 소식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을 느끼고 유용한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동네 머슴이 되겠습니다!"  
배재근 기자



"북현동의 맛집소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백명숙 기자



"건강한 북현동을 위하여!"  
김민정 기자



"북현동 주민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규 기자



"우리 동네가 행운의 동네가 되기를"  
편집위원장 하경진



"봉사는 나의 활력소"  
주민협의회 대표 강순덕



"속이 짝찬 신문,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상보도국장 김태호



BREAKING NEWS [속보] 마을기자단 소개



### 우리 마을 행복의 시작, 행복화단 가꾸기

하경진 편집위원장

북현1동 우리 마을의 유관단체 봉사회원들은 마을에 어려운 사업들이 쌓여있음에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사계절에 맞춰 행복화단 가꾸기에도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전반이 정체됨은 물론 마을 화단 가꾸기도 많이 지연되었으나 6월 초 복구청으로부터 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분된 아름다운 꽃 세종류를 각 단체별로 담

당하여 행복화단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봉사회원들은 정성을 들여 꽃 모양새를 잡아가며 화단에 심고 다듬었으며 곁들여 관상수 전지 및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작업을 마쳤다. 작업 후 가꿔진 행복화단을 본 마을 주민들의 밝아진 얼굴을 통해 행복화단의 존재가 참 고맙게 느껴졌다. 쓰레기 방치와 주차관개로 항상 문제로 여겨진 자리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행복화단을 가꾸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행복화단을 가꾼 봉사회원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과 봉사 열정이 점점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친김에 더 좋은 생각과 실천들로 더욱 발전하는 북현1동 우리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경광개선이 시급한 북현종합시장상가의 앞날은?

백명숙 기자

북현종합시장상가 건물은 북현동에서 최악의 흉물이며 20년이 넘도록 재건축이 되지 못한 채 속제로 남아 있다. 어째서 긴 시간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현종합시장상가 재건축준비사업조합 관계자를 만났다. "현재 복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허가 후 약 15년이 지났으며 조합장 의견 불일치와 대지 지분 용적률 부족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고도제한으로 약 17층 높이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조합원 반대 및 매도청구 1,2차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북현종합시장상가 내 방문 및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반이 가라앉아 위험하므로 조속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북현종합시장상가 재건축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재건축을 향한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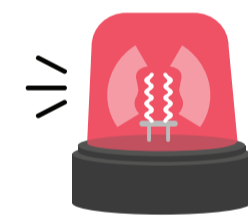


### 복잡소가 복잡복작해질 참신한 아이디어! 마을대학 견학 후기

강순덕 주민협의체 대표

6월 12일 북현1동 도시재생 마을대학 제2기 과정 중 김해에 견학을 다녀왔다. 견학 도중 인상깊게 본 것이 있는데 바로 <회현객당>이다. <회현객당>은 폐지 좁는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컵라면 편의점이었다. 후원자 명단이 적혀있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심성이 느껴져서 좋았다. 혼자서 먹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

록 테이블을 마련한다면 근처에 다니는 이웃 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복잡소 운영에 수익 발생이 되면 이러한 사업도 지속적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한 북현1동의 숨은 공신, 북현1동 자율방범대

최유정 기자



'북현1동 자율방범대'는 조직단체 회원들과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과 방범활동을 진행한다. 총 회원은 57명으로 거리 청소, 치안 관리, 마을 환경 미화 등 북현1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현1동 자율방범대'는 2019년도에 전국 방범활

동 베스트 1위를 수상하였으며 그해 하반기에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국회의원상, 구청장상, 경찰청장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지만 6월 19일부터 순찰활동을 재개했다. '북현1동 자율방범

대' 대장인 배재근은 "앞으로도 최고의 방범활동을 이어나가며, 북현1동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라며 다짐을 전했다. 북현1동의 안전한 거리 속에는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숨어있었으며 우리 동네가 빛나는 이유 또한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이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쓰레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태호 기자 (영상보도국장)

최근 우리 동네 쓰레기 민원과 관련하여 그 현장을 취재하여 보았습니다. 주말 저녁 공공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길거리 쓰레기가 많고 분리수거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을 동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기후 위기, 쓰레기 문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현1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쓰레기들이 나뉘는 슬픈 현실, 여기가 쓰레기 거리인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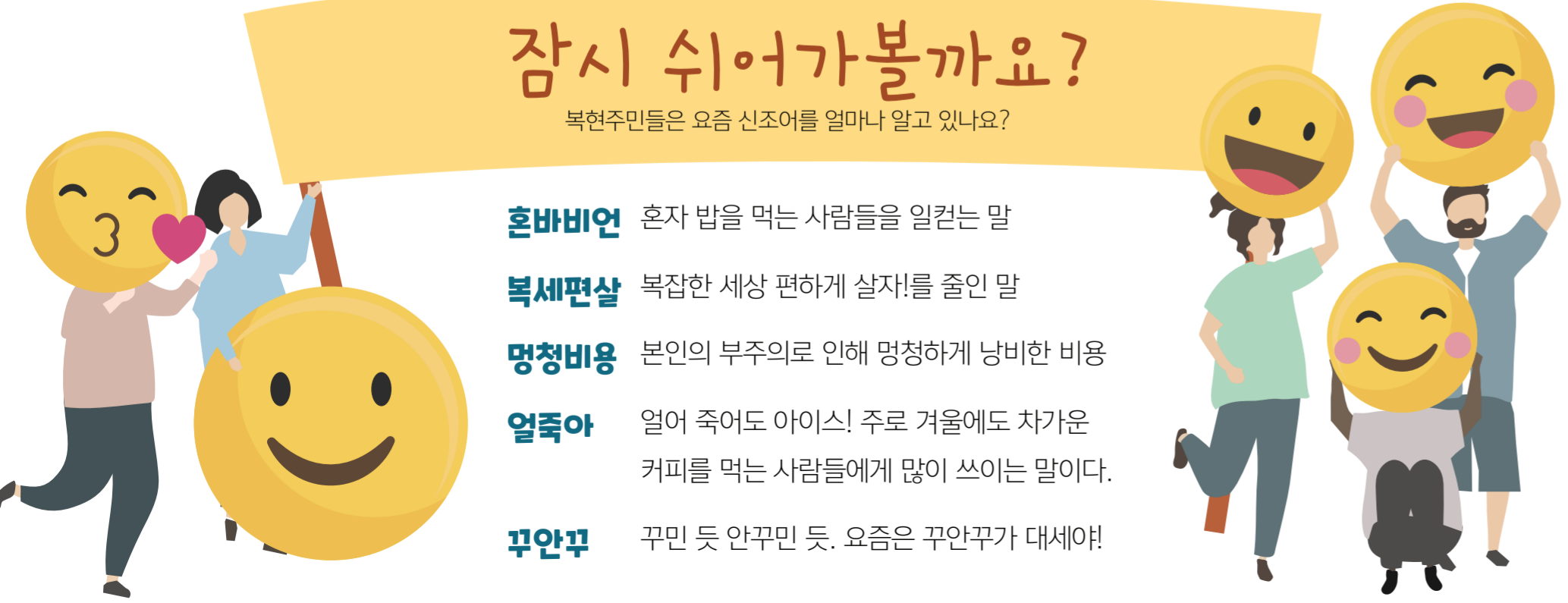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기사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ite.naver.com/0Ech3



지상17층 지하7층  
면적적 4만 789제곱미터를  
차지하는 우리 애향단지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7년이 지났지만  
필요하겠습니다!

나도 귀찮아요  
내가 맥락이 되어도  
저걸 봐야겠나



### 잠시 쉬어가볼까요?

북현주민들은 요즘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 혼바비언**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재를 줄인 말
- 명칭비용**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명칭하게 낭비한 비용
-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주로 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먹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말이다.
- 꾸안꾸** 꾸민 듯 안꾸민 듯. 요즘은 꾸안꾸가 대세야!

### 마을과 청년은 어떻게 어우러는가?

북현동은 '대학 옆 마을'이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요즘 동네들은 청년을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현은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청년들이 머무는 마을이라는 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주민들의 공간에 새로운 도전과 웃음을 가진 '젊은 피의 수혈'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온다. 이제 북현이 고민해야 할 것은 청년과 주민 사이의 접점을 찾고,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과 마을이 잘 어울려 지내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도시재생 사례지 소개

## 서울 아래 성곽마을, 성북구인 3·6·9 마을

김민국 기자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의 3·6·9 마을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언덕마을(三育丘)이다. 마을 규모가 워낙 작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적으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인근 대학이었던 한성대학교와의 협업을 시작했다. 한성대학교도 이에 대한 고민에 공감을 표했고, 마을과 지역대학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마을과 공동으로 포럼을 열기도 했다.

이전부터 한성대의 청년들은 지역에서 조각, 미술, 예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싶어 했으나 사실상

마땅한 공간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터'와 '예술공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청년들이 예술 활동과 전시를 진행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초대 손님'이 된다. 또한 한성대는 작가를 초청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들을 이곳에서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3·6·9 마을은 서울시의 낙산성곽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특색을 살려 마을 주민과 청년이 함께 진행하는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시도 중에 있다.



사진출처 3·6·9 성곽마을 공식 홈페이지



#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 북현1동 주민들도 조심해야

김민정 기자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실내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 불안감, 우울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다. 이는 청년 세대에서만 극심하게 나타나는 듯하였으나, 노년 세대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블루는 북현1동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북현1동의 경로당 등이 폐쇄되자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수면장애,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수면장애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바나나, 따뜻한 차, 견과류 중 호두와 아몬드, 우유가 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전통한방차와 대추차는 심장 기능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허브차의 경우 잠들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지치고 우울했던 마음을 진정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몬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소량을 섭취하면 좋고, 호두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불면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유는 스트레

스를 해소해주는 성분이 풍부하여 밤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 속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 우유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 배출과 전신 순환도 도와준다. 이러한 방식이 수면장애 등과 같은 코로나블루 현상을 이겨내고 활기를 되찾을 북현1동의 모습을 기대한다.



## 북현동 인근 병원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아플 때가 한번 씩 생기죠? 꼭 알아두세요!



대구 파티마병원(종합병원) 053-940-7114 / 24시간

대구시티병원(종합병원) 053-959-7114 / 24시간

든든한병원(신경,정형 전문) 053-940-3000 / 평일 09:00 ~ 17:3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늘사랑약국(대구광역시 북구 공향로 10) 053-951-4565 / 평일 08:00 ~ 19:00, 토요일 08:00 ~ 18:00, 일요일 15:30 ~ 20:00

새건강약국(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78) 053-951-3744 / 평일 09:00 ~ 13:00, 토요일 09:00 ~ 21:00



주민협약체 회원인 김동필 회원님이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사업장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최근 다시 문을 열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경북한우축산조합  
연락처 053-952-0402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동 424-5



# 어서오이소 맛보이소 맛있지예 북현오거리 먹자골목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 맛집은 어디있을까? 우리는 흔히 맛집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가며,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을 기다리는 수고까지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숨겨진 맛집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쉽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푸드 가이드, 이번 코너는 북현동의 숨은 맛집을 찾아보는 '우리동네 맛집 소개'입니다.

막창이 생각하면 찾을 수 밖에 없는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북현오거리 먹자골목입니다. 이 골목에는 다른 식도락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막창이 있습니다. 저녁시간이면 이 거리에는 막창이 노랗노랗하게 다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한가득입니다. 30년 내공을 지닌 막창 노포들의 음식 노하우를 경험하고 비법 소스를 맛보기 위해서 인근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구 여기저기서 모여든다는데요. 이 골목은 1990년대 한마디로 '막창 불'이 일어나면서 막창과 관련한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성황을 이루며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먹자골목에도 한때는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 다. 바로 경기 침체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부흥시키고자 2018년 북구청과 대구시, 상인회가 합심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 새 단장까지 하게되어 골목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현오거리 먹자골목 페스티벌'은 이 골목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먹자골목의 주음식인 막창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골시식회와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어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북현오거리의 자랑거리를 넘어 대구의 자랑거리로 거듭날 '북현오거리 먹자골목', 이번호에서는 맛있는 막창을 소개하려 합니다.



북현1동 동네의 다양한 맛집 제보 부탁드립니다!!



## 절로 즐거워지는 북현1동 막창 맛집을 소개합니다!

이선화 기자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북현1동의 맛집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친 싱글빙글 막창입니다. 싱글빙글 막창만의 특징은 돼지막창을 구울 때 제공된 커다란 손가락과 기다란 집게로 계속해서 볶듯이 섞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막창 가게에서는 보지 못한 방식이라 특이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막창을 굽는 방식은 마냥 구워지길 기다리는 것 보다 지겹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 익은 막창을 한 입 먹어보니

돼지 잡내가 나지 않았고 간이 적절히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소스를 듬뿍 찍어먹으면 더 맛있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막창과 함께 곁들여 먹을 밑반찬으로는 곁절이와 백김치, 양파절임과 각종 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막창을 다 먹은 뒤 공기밥을 추가 주문하였습니다. 공기밥을 주문하면 된장찌개를 함께 주십니다. 된장찌개는 평소 먹던 된장찌개보다 칼칼하고 매콤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를 마친 후 가려던 저희에게 사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주셨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가게를 찾아 주시는 모든 손님 분들께 드리는 서비스 후식이며 손님분들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피란민촌 골목길 꾸미기 및 주민쉼터 조성

배재근 기자

북현1동 주민협의체(대표 강순덕)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장소인 피란민촌 골목길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는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북현1동 마을대학 제2기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에 오래되고 낙후된 피란민촌 골목길을 새 단장하기 위하여 벽화를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의자를 비치하는 등 새로운 골목길의 재탄생을 이루어냈다.

주민협의체 회원들의 지역사랑과 벽화 작업을 위해 흔쾌히 본인들의 집 벽을 내어주시신 주민 그리고

말소리 등의 소음도 사람 살아가는 정(情), 삶의 향기로 기꺼이 감내하시어 집 대문 앞을 내어주시신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피란민촌 골목길의 재탄생을 시작은 북현1동의 새로운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주민협의체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주변을 보살피며 보다 나은 현재보다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다.



북현1동 사람냄새 나는 사람, 특별한 북현의 손맛

# 첫 번째 이야기, 배옥자 어머니의 취하지 않는 '술밥'

심재신 기자



북현유사 인터뷰를 위해 배옥자 어르신을 뵙고 왔다. 저번 주에 찾아뵈려 갔을 땐 몸이 안 좋으셔서 인터뷰를 못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엄청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우수수 이야기를 쏟아내주셨다. 인터뷰 도중 음식 이야기가 나왔고, 직접 만드신 술밥과 찜뽕을 먹어보라고 꺼내 주셨다. 당신께서 음식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다 하셔서 경로당에서도 음식솜씨가 유명했다고 하신다. 과연 솜씨가 있으셔서 찜뽕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시원했다. 술밥은 정말 오묘한 맛이였다. 술을 담글 때 쓰는 누룩으로 지은 밥인데 비주열은 누렇지지만 새콤달콤했다. 그 특이한 맛에 몇 숟갈을 더했다. 술밥이라해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맛보고 표정관리가 안되니 서로 팡터져서 웃었다. 1939년생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술밥의 맛은 처음 맛 봤기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의 애환과 여러 감정을 담아내 이걸 만드시고 또 베푸시는 마음들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그 술밥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계속 원가를 대접해주려고 하시는 할머니께 연신 괜찮다고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신경써주시고 베풀어주셨다. 함께한 청년 편찬자를 비롯해 나 역시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사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인터뷰한 배옥자 할머니께서는 6.25사변 당시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영천으로 내려오시고 결혼 후 대구 북현동으로 오신지 약 50여년이 지나셨다.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억들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다. 평범하고 곁에 있어 소홀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있게 만든 고마운 분들이다. 오늘이 현충일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청년 편찬자분들과 센터 분들이 더 고생하고 계산만큼 재미있게 그 의미를 살린 이야기들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부디 건강하셔서 함께 나누길 기도한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 7대 기본생활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19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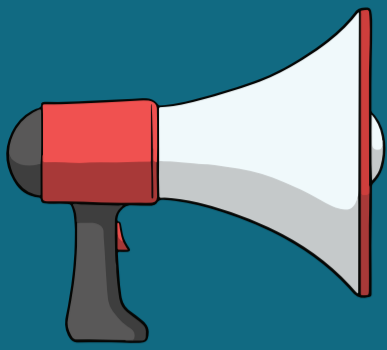
집회·모임·회식  
자제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상반기 북원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소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북원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상반기동안 진행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활동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진행 된 프로그램 중 4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작은 늦었으나 방역을 철저히 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현장으로 가 보실까요?

이현민 기자



## 북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대학 2기 -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커뮤니티 디자인

첫 번째는 '북원1동 마을대학 2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마을대학은 뉴딜사업에 대한 기초 교육과 더불어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간·환경·공동체·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2기에서는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과 대구의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1기가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 2기는 현장 워크숍을 병행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과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여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나누어 도시재생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역인

회현동 일원 선진지 답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주도 문화예술행사 및 마을사업 운영 노하우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을대학 2기의 마지막은 수료식이었는데요. 6월 26일에 이루어진 수료식에서는 각 팀별로 북원1동 발전을 위한 실행 결과물을 공유하며 주민 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간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수료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수료증을 배부했습니다. 2기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일구어낸 성취도 확인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북원1동 도시재생 마을대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북원 도시재생 마을대학 3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앞으로도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김솔잎 팀장



▲ 북원 도시재생 마을대학 2기 수료식



▲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역인 '회현동' 선진지 탐방

##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 2020 북원유사

북원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북원유사'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북원유사는 북원동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청년들이 기록하는 사업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마을스토리 자원을 발굴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연장선으로 작년에 '북원유사' 이야기 책을 발간하였고, 성과 공유회를 통해 청년 극단의 낭독극과 어르신들이 시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를

기반으로 한 연극까지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20 북원유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0 북원유사'는 2020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 중인데요. 이번 참가자는 청년 편찬자 5명, 주민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집필방식은 작년과 같이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설화나 동화로 각색하는 형식인데요.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를 여러 세



▲ 1:1인터뷰 중인 채인수 어르신과 장준원 청년 편찬자



▲ 북원유사 사례자 인터뷰 중인 모습



▲ 2019년 성과공유회

대가 공감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랍니다. 작년에는 집합 교육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기위해 청년 편찬자 모임은 온라인 교육을 하였고, 청년들이 주민을 찾아가는 1:1 인터뷰로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북원1동 마을 답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북원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취지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북원유사의 집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2020

북원유사는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있는 주민들의 사진과 소장품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풍부한 스토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북원유사 프로그램이 올해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례집 30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0월에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였고, 우수상(LH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북원유사 구술자로 참여하신 주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북원1동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원동력이 되어 마을자원이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북원1동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원동력이 되어 마을자원이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 기대됩니다.

담당 이주은 팀장

## 2020북원1동 청소년소셜리빙랩 시즌2



▲ 청소년소셜리빙랩 시즌2 결과 공유회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에 청년 세대와 피란민촌 주민 세대의 만남과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세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는데요. 바로 '2020 북원1동 청소년소셜 리빙랩 시즌2'입니다. 북원1동 청소년소셜리빙랩은 2019년 처음 '청소년소셜리빙랩 시즌1'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46일의 일정으로 '청소년소셜리빙랩 시즌2'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임원과 청년 참가팀이 한조로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통한



▲ 주민-청년 공동워크숍 활동 모습

해결책 모색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소년소셜 리빙랩 시즌2'의 총 4팀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스그린팔레트팀의 지

역내 원룸촌 일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방안 모색 △얼라팀의 지역내 문제를 발견하고 실험 영상 제작 을 통한 문제 인식 및 태도 개선 △돌고도는 인생팀의 신·구세대의 지역 문제에 대한 퀴즈와 토론을 통해 세대 간 소통 부족을 극복하고 세대 간 교류 네트워크 형성 △일렉스팀의 지역의 현안 문제 홍보 및 해결을 위한 로고송 제작 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북원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 '청소년소셜리빙랩 시즌2'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층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함께할 청년 주제 발굴 및 세대간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최서현 팀장

# 피란민촌에 대한 기록·기억·재탄생

## -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

지난 7월 14일에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은 착수보고회가 열려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피란민촌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 공간정보 기술 분야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원재호 교수, 물리적 실측분야에 (주)다스빔 김태훈 대표로부터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주민·청년조사원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쌍방향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은 피란민촌과 마을에서 5~6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역사를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마을 공간 구조에 대한 3D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주민들의 역사를 구술사, 생애사로 기록, 보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술, 물리적 실측 조사, 주민 인터뷰 및 기술 기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4월부터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답니다. 이렇게 축적된 마을 스토리 자료는 피란민촌 기억박물관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의 하나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피란민촌이 변화하게 될 예정이니 기억박물관을 통해 피란민촌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지원 센터에서는 2021년부터는 복현동과 인접하고 있는 경북대, 영진전문대 등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마을 스토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기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에서는 주민여러분이 가진 마을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피란민촌의 옛 추억이야기와 사진, 물건 등 소중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이주은, 김슬잎 팀장



▲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 착수 보고회 현장



▲ 전체 회의 모습

# 마을동아리 발굴 육성사업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추진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팀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지난 10월 16일 최종 6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팀의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조직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53-939-3550)

### 마을동아리 발굴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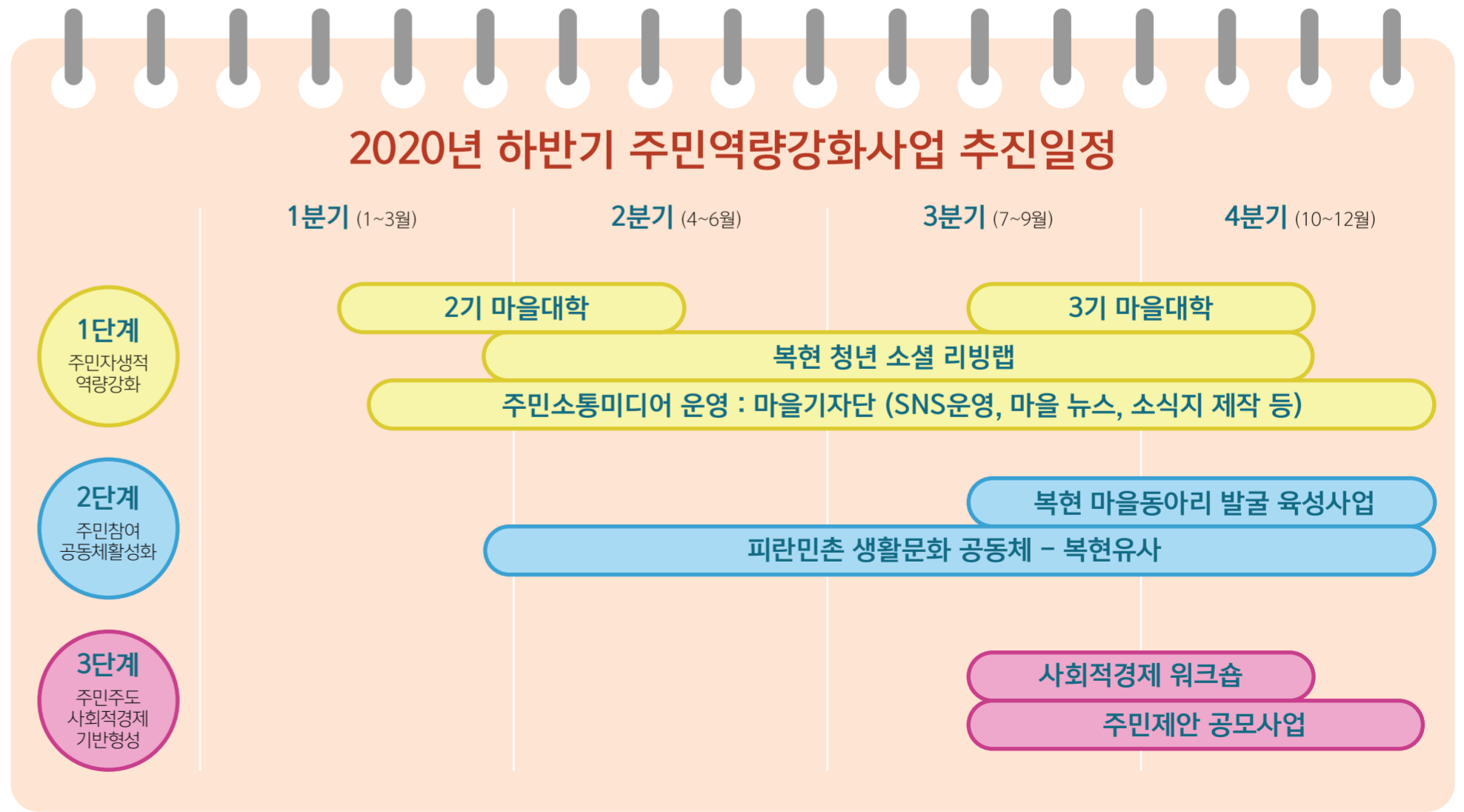
다양한 주민모임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씨앗 육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

- **하모니카 동호회**  
음악, 취미를 매개로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 **은빛 봉사단**  
시니어층을 주축으로 소외계층 반찬 나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까지 풍물단**  
풍물 강습, 지신뱃기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결속력 강화

###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직접 제안 및 실행 지원

- **벽화사업팀**  
주민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노후 골목 환경 개선
- **배서남봉사단: "배워서 남주자"**  
다양한 취미, 재능을 가진 주민 강사 발굴 및 양성
- **복현살롱**  
이·미용 봉사, 한끼 나눔 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 피란민촌을 기록하다! 기억하다!

##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피란민촌 기록화) 사업 진행

지역의 사라져가는 역사 흔적, 마을 모습, 우리들의 추억이야기에 아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피란민촌의 삶과 추억을 기록하고 기록된 이야기를 새로운 미래가치로 재탄생 시키는 기록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집기간** 2020년 9월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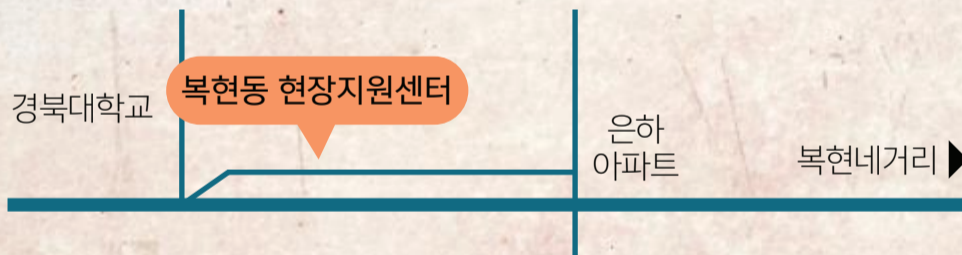
- 수집내용**
- ① 개인 및 가족사진 (가족 및 이웃 인물사진, 돌, 환갑, 생일잔치, 집안행사 사진 등)
  - ② 마을행사사진(소풍, 운동회, 졸업앨범, 마을잔치 등)
  - ③ 피란민촌 경관 사진(골목길, 집, 화분, 대문 등)
  - ④ 마을관련 기록물(관보, 반사회보, 회의록, 일지, 전단지, 안내문 등)

**참여방법** 해당 자료를 소장하신 분은 아래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연락 및 방문 부탁드립니다.

**참여혜택** 소정의 기념품 제공

**문의 및 접수처**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53-939-3550

**오시는 길**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9길 13, 2층 (복현1동 617-38)  
T. 053-939-3550    F. 053-939-3551



※ 보내주신 사진 및 기록물은 스캔 후 다시 돌려드리며, 피란민촌 기록화사업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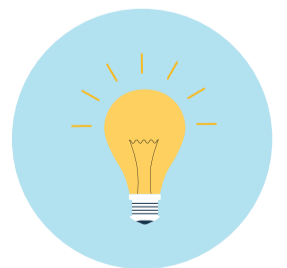
## 함께 만드는 들샘소식지 참여방법



**1** <마을소식함>에  
제보해주세요!



**2** 마을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복현의 나날을 함께  
기록해나갈 분을 찾습니다.  
분야 마을 기록, 사진·영상 등



**3** 원고와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들샘소식지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